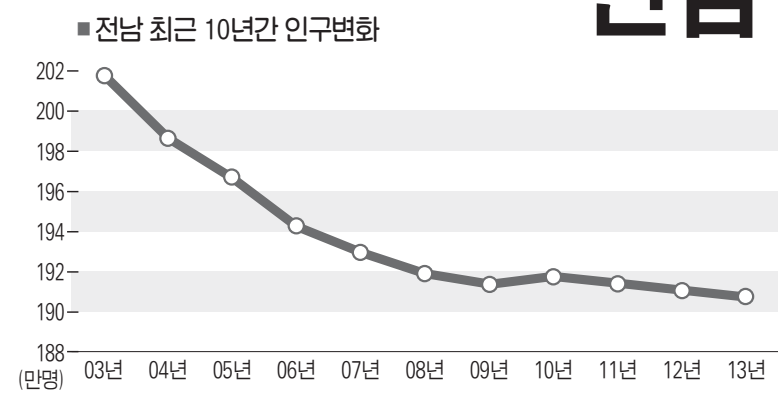


전남 인구 감소세 멈추나

10년전 연간 3만명대... 작년 2천명대로 줄어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덕분... 고령화 우려도



10여년 전, 연간 3만명가량 줄었던 전남도의 인구 감소폭이 지난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 기업유치와 한옥마을 건설 등으로 일자리가 많아지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더 이상 줄어든 인구가 없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5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인구가 190만7172명으로 전년 190만9618명보다 2446명이 주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전남도 인구 감소폭이 2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0년 5000여명 증가를 제외하곤 1991년 인구 통계

표 이후 처음이다.

2010년 5481명 증가도 당시 주민등록 불명자 1만2821명을 일괄 등록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당시도 7300여명이 준 셈이다.

전남지역 인구 감소는 2008년까지는 1만~4만명까지 줄다가 2009년 6000명대, 2011년 이후 4000명대로 감소폭이 둔화했다.

전남도는 감소폭 둔화 원인으로 우선 4000여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14만5000명)을 들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130여개 달하는 행복마을과 전원마을을 조성, 전국 최초의 은퇴도시, 농어촌 뉴타운 조성 등으로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인구 변화 추이로 볼 때 앞으로 2~3년 내에 인구 감소율은 멈추고 2020년이면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처음으로 신생아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는 등 전남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 인구는 지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1998년을 제외하고 42년간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현상이 지속돼 최근 10년 동안에만 17만700명이 빠져나갔다.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일선 지자체의 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만 되면 일부 시군에서는 각 50~110여명의 젊은이들이 대학 입학과 취업 등으로 주소를 타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전남지역의 거주불명등록자수(1만3594명)를 제하면 이 지역 인구수는 189만3578명으로 사실상 190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의사들이 주축이 된 '평천회' 회원들이 지난해 송년모임에서 광주진료소 건립기금을 위한 1060만원의 성금을 모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은 성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지역사회 '심시일반'... 광주진료소 성금 이어져

평천회 1060만원·도시철도공사 200만원 등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000여만원 모금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 정신'을 동남아시아에 전파하기 위한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 건립 및 운영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2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성금 모금이 시작된 이래 이날 현재까지 30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의사들이 주축이 된 '평천회'(회장 최홍성 광주시의사회 회장) 회원들은 지난해 송년모임 현장에서 즉석 모금을 통해 1060만원을 기탁했다.

'평천회'는 최홍성 회장과 김창남 남영건설 회장, 전성현 아이퍼

스트병원장, 심삼식 맑은 피부과 원장, 감대용 우리들병원장, 윤창미르치과원장, 이상영 청연의료재단 이사장, 황철희 무등산 CC 부회장, 김중영 변호사, 조윤성 조선대 미대 학장, 박해자 국회의원, 최갑렬 삼일건설 회장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200만원을, 양관운 오토팜(AUTO FARM) 대표가 100만원을 성금으로 기부했다.

한승표 우리 아동병원장과 (주)인팩 정용섭 대표이사는 각각 10만원씩을, 박명수씨가 3만원을 성금으로 기부했다.

앞서 광주일보 5·18 취재팀이 지난해 '5월 역사 왜곡·관행'과 관련된 보도로 5·18 언론인상을 수상한 상금 100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했으며, 광주시의사회가 1000만원, (주)해양도시가스가 300만원을 성금으로 내놓았다.

동남아시아 '광주 진료소' 개설 추진사업에는 광주일보와 아시아 지원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 광주시·광주시의회를 비롯한 광주지역사회·광주시약사회·광주시치과의사회·광주시한의사회·광주시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의약 5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모금계좌=광주은행 013-107-337079(예금주: 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

▲문의 전화=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062-222-3566), (사)희망나무 사무국(062-675-7118)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전남 경제성장률 전국 평균 웃돌아

9년간 생산 62.7%·소득 44.6% 증가... 제조업 성장세

전남지역 인구 감소폭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은 지역 내 산업기반이 탄탄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남도는 5일 “지난 9년 동안 지역 산업 구조 및 지역 총생산

(GRDP)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내 총생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생산은 62.7%, 소득은 44.6% 증가해 전국 평균 생산(53.7%)과 소득(41.3%)

상승률보다 각 9%포인트와 3.3%포인트 높았다.

산업구조는 광업, 제조업 등 2차 산업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하거나 증가세 둔화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산업별 비중은 농림어업 9.2%, 광업제조업 51.54%, 서비스업 39.3%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매년 평균 11.8%(전국 7.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29.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전년 5기 동안 평균 17% 성장했다.

지역 총생산(GRDP)도 연간 평균 6.9%(전국 평균 5.7%) 성장했으며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004년 864만1000원에서 2012년 1249만6000원으로 44.6%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41.3%보다 다소 높았다.

광주광역시 kroh@kwangju.co.kr

홍어 물결에 흑산도가 들썩

한달 늦은 홍어 소식... 하루 1500마리 위판

'겨울철 별미'인 신안군 흑산 홍어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 예년보다 한 달 늦게 찾아온 홍어 소식에 흑산도가 들썩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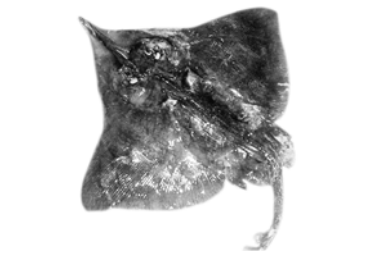
5일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에 따르면 전남 6척의 어선이 홍어 1500마리를 잡아 위판장이 흥어 물결을 이뤘다. 위판액만 2억3000만원이다.

신안선적 101 대광호는 650마리

를 잡아 최고의 어획고를 올렸다.

대광호 선장 최용하씨는 “20여년 동안 홍어를 잡았지만 이처럼 많이 잡기는 최근 들어 처음이다”면서 “조업 철을 맞이하고도 한 달 동안 홍어를 잡지 못했는데 흑산도 인근 해역에 홍어떼가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의 강력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으로 어장 환경이 좋아



가 가격은 4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이 원인으로 보인다.

박 과장은 홍어 풍어가 당분간 이어지고 설을 앞두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흑산 홍어는 신선한 회로도 먹지만 살짝 먹을 때 코끝을 찌는 특유의 맛을 낸다. '황산 콘드로이틴'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돼 관절염, 기관지 천식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흑산 홍어는 연간 40여톤의 소득을 안겨주는 신안의 대표 특산물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호남 한국학진흥원' 설립 탄력 예산 2억 확보·시의회 조례 제정

올해 정부 예산에 '호남 한국학진흥원' 설립 지원(기본설계비) 예산 2억원이 반영돼 호남권에 처음으로 한국학 연구 및 보존 전문기관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 이용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호남 한국학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이 현우석 부총리와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

실장 등 정부관계자를 직접 만나 조기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냈다.

또한, 김광림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와 최재천 민주당 예결위 간사 등 예결위원들을 설득하여 난항에 빠져 있던 '호남 한국학진흥원 설립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재)한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는 호남진흥원의

목적과 법인 설립·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출연, 보고, 감사 등을 10개 조문을 담고 있다.

이처럼 조례 제정과 설립을 위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향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지역 자치구와 함께 설립 준비를 할 계획이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하게 보장이 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중앙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든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중앙지점 | 653-4474

동국대학교 전산원 학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전산원 특징

- 최우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정)
-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3학년 학사편입 1위 (2013년 학사편입 등 233명) - 10년 연속 학사편입 최다배출 교육기관
- 대학원 진학의 저비용 - 동국대학교 대학원 (MBA 등)과 연계 운영
- 저렴한 학비, 학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취업서비스 제공

모집학과

학과	학위	인원	학과	학위	인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00명	외식경영학과	관광학사	00명
멀티미디어학과	00명	사회복지학과	00명		
경영학과	경영학사	00명	행정학과	행정학사	00명
국제경영학과	00명	영화영상학과	예술학사	00명	
호텔관광경영학과	관광학사	00명	경영학과(주말)	경영학사	00명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교육경력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나. 면접 및 면접 고사

수능성적·내신과 무관 / 대학수시·정시전형과 무관

전형일정 및 장소
가. 전형일정: 홈페이지 (http://www.ducsu.ac.kr) 참조
나. 면접장소: 동국대학교 반어관 4층 (동국대 체육관)

입학상담 02-2260-3333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전산원
3호선 용대입구역 6번출구 (동국대학교 캠퍼스 내)
3, 4호선 용무로역 1번출구